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410장 다같이

1.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2.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3.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4.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후 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태복음 11장 28-30절 인도자

설 교 “쉽고 가볍게 사는 법”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새로운 해에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3. 겨울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쉽고 가볍게 사는 법

마태복음 11:28-30

우리는 잘못 살 위험이 있다. 수많은 활동을 하고 온갖 즐거운 것들을 즐기고도 결국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하나뿐인 삶을 허비했다는 후회감에 빠질 수 있다. 삶이 제시하는 각종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지 못하고 삶을 허비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쁨이다. 현대 문화의 메시지는 느린 것은 나쁜 것이고 빠른 것이 좋은 것이다. 코리 텐 봄은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바쁘게 만든다”고 했다. 죄와 바쁨은 똑같은 결과를 만든다. 바쁨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 바쁘기 때문에 자녀, 가정을 돌볼 수 없다.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 분노, 짜증, 비판, 불평이 일어난다. 바쁨은 사탄의 속성이고, 느림은 예수님의 속성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바쁜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었다. 바쁨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에서 멀어지게 한다. 마르다도 분주하고 바쁘니 동생을 질투하고 책망했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바쁘시지요?”다. 나의 대답은 “아니요”다. 이 말은 마치 내가 바빠야 한다는 것처럼 들린다. 나는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 바쁘다. ▶ 그리스도인들이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가족들과도 멀어진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바쁨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늘 긴박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돌진이나 장애물 뛰어넘기, 야단법석, 허리케인 같은 단어와 관련이 있다. 바쁨은 외로움,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에 반응하여 미친 듯이 노력하는 상태다. “바쁨은 우리 시대에 영적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야. 삶에서 바쁨을 가차 없이 제거해야 하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성경을 묵상하고,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교인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 시대의 주요 질병인 신경성 질환, 소진 증후군, 우울증, 경계성 성격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은 바쁨에서 기인한다.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바쁨은 영성, 건강, 가정, 배려, 창의성, 배움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죽인다. 그런 점에서 멍 때리기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삶을 단순화하고, 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다. “다 내게로 오라.” 바쁜 사람, 피곤한 사람, 탈진한 사람, 스트레스 많은 사람,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 쉽이 없는 사람, 짐이 무거운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초대다. 주님에게 오면 내 멍에와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매게 된다. “멍에는 일하는 도구다. 따라서 예수님이 멍에를 제시하신 것은 지친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 법한 것을 제시하신 셈이다. 지친 일꾼들에게는 멍에가 아닌 매트리스나 휴가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삶을 사는 새로운 방식, 인생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참신한 방식이라는 점을 아셨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은 짐의 연속이다. 이 짐들을 벗어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가 아닌 대체 장비를 제공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예수님의 속도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사랑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